

적정온도 유지와 환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리/이창훈 기자

사 계절의 구분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경우 계절에 따라 적합한 사양관리를 해야하는데 사계절 중에서 양계에 가장 기후조건이 좋으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계절은 역시 봄이다.

이때는 여름 육계수요를 겨냥하여 병아리를 대량으로 입식하기 때문에 한번에 필요한 만큼의 병아리를 공급받지 못하여 계사내에서 여러일령의 닭들이 사육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올-인, 올-아웃이 어려움은 물론 각종 질병이 발생하며, 특히 10°C가 넘는 일교차로 인해 호흡기 계통의

질병 발생율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봄이되면 계사 주변의 정리는 물론 일교차가 10°C가 넘지않도록 온도관리를 잘 하여야 하며 습도 및 환기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단위 밀집사육을 하는 양계업에서는 거의 모든 질병이 그러하듯이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치료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을 남기게 됨으로 무엇보다도 사전예방이 최선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병아리를 입식하기전에 계사주변을 정리하여야 하는데 계사내·외부의 정리 및 소독은 물론 계사주변

의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곳이나 급수탱크 등의 외부시설에도 철저히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음수로서의 적부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또한 사람, 기구, 야생조류, 동물, 쥐 등에 의해 세균이 전파되지 않도록 출입 통제 및 계사보수작업도 실시하여야 한다.

뉴캐슬병(Newcastle Disease)

뉴캐슬병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며 강독과 중간독, 약독으로 구분되는데 강독에 감염되면 90~100%의 높은 폐사율을 나타낸다.

이병의 주요증상은 골골거

리면서 개구호흡을 하며 콧물과 침을 흘리고 머리를 좌우로 돌리며 다리와 목의 마비와 떨리는 증세가 나타난다. 또한 녹색의 설사와 식욕저하, 우모가 꺼칠해지고 산란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정지되기도 하는데 부검을 해보면 선위 소장 등에 출혈반점이 나타난다.



아시아형 뉴캐슬병의 개구호흡.

이병은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으며 백신접종은 육성프로그램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으나 대개 1~3일령때 1차접종, 10~14일령때 2차접종, 28일령때 3차접종, 60~80일령때 4차접종, 2~4개월 간격으로 5차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염성 기관지염(Infectious Bronchitis)

전염성기관지염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며,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연령에 관계

없이 감염되는 호흡기질병으로 전염성이 대단히 빠르고 수란관과 콩팥에 침해를 주어 산란율이 20~50% 저하되고 기형란을 낳기도 하며 요산이 침착되면 호흡기증상은 물론 폐사율이 30%에 이른다.

주요증상은 병아리일때는 호흡기증상으로 기침, 재채기,

골골거리며 콧물과 눈물이 나오고 허약해지고 침울하며 웅크리고 모여있다.

산란계에서는 호흡기증상은 약하게 나타나며 드물게는 눈



전염성 기관지염에 의한 기형란.

물과 콧물도 나타나고(합병증일 때), 산란을 저하 외에는 폐사율은 거의 없다.

치료법은 없으나 세균감염을 막기 위하여 항생제를 투여하여 기낭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행하는 혈청형을 조사하여 적합한 백신을 접종하고, 백신을 접종한 닭은 기낭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깊게 관찰하여 항생제도 같이 사용해야 한다.

병아리에 있어서는 밀사를 하지 말고 실내온도를 맞추어 주면 감염된 병아리에게 도움이 된다.

전염성 후두기관염(Infectious Laryngotracheitis)

전염성후두기관염(ILT)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82년 2월에 처음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전파되었다.

이 질병은 일령에 관계없이 감수성이 있으나 성계에서 피해가 더 심하고 폐사율은 2~70%이며, 감염계로 부터 배설된 바이러스에 의하여 공기전염 된다. 또한 회복된 닭은 보독계가 되어 전파시키는 역할을 한다.

증상은 골골거리는 소리와 심한 호흡곤란에 기침을 하며, 목을 앞으로 길게 빼고 괴음성을 내며 호흡하고 기침시 혈액이 섞인 점액이 나오며 각혈을 하기도 한다.

또한 눈물이 나오고 결막염과 눈이 붓기도 하며 설사를 동반한다.

이 질병은 전파속도는 느리나 육계에 감염되었을때 접촉에 의하여 빠른속도로 전파되고 2차적으로 세균 및 다른 바이러스의 감염을 받으면 증상이 악화되고, 기관에 위막, 혈액과 가래가 끼어 질식사하게 된다.

이병의 효과적인 치료법은 없으며, 예방접종한 닭 또는 회복된 닭을 감염되지 않았던 닭과 동일한 계사에서 같이 사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백신접종은 발생지역이나 발생위험이 있는 양계장에 한하여 접종하며, 백신접종일령은 현재 발생중이거나 발생위험

이 큰 지역에서는 2~3주, 5~6주, 12~16주로서 3회 접종하고, 과거에 발생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4~6주, 12~16주 2회 접종 하여야 한다.

감보로병(Infectious Bursal Disease)

감보로병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며 이 바이러스는 56°C에서 5시간 동안 살 수 있는 열에 대해 안정성이 있는 바이러스이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웨브리셔스낭(bursa of Fabriciu-

이 높고 그후 2~3일이면 회복하기도 하고, 조기에 감염을 받으면 다른질병을 유발하여 높은 폐사율을 나타낸다.

또한 빈혈 및 백색설사에 요산이 항문주위에 묻어있어 지저분하며 식욕감퇴, 털의 역립, 침울하고 약간 떨리는 증상이 있다.

이 질병은 전파력이 빠르고 주로 6주령 이하의 병아리에서 발생하며, 효과적인 치료법은 없고, 타질병 유발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항생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철저한 소독과 백신접종 등의 위생적인 사양관리가 최선



자연감염된 닭의 개구호흡.

s)이 침해를 받아 임파조직이 파괴되어 항체를 생산하는 면역능력이 결여 또는 저하되어 면역부전현상을 일으키며, 폐사율은 4~9% 정도이다.

이 병의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며 5~7일에 가장 폐사율

책이며, 주로 접촉에 의하여 감염이 이루어지므로 양계기구, 출입인의 소독 및 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10일령 이후에 생독백신을 먹여야 한다.



**바이러스 접종 3일후의
증상 : 깃털은 역립하고
웅크리고 있다.**

마이코플라스마병(Mycoplasma gallisepticum Infection)

마이코플라스마균에 의해 발병하고 감염시 육계에서는 성장율이 낮아지고, 산란계에서는 산란율이 저하된다.

증상은 산란계의 경우 산란율과 사료소모가 저하되고 가벼운 호흡기증상에, 폐사율은 거의 없으나 합병증일 경우 폐사하기도 한다. 육계에서는 눈물, 콧물, 기침, 안면부종과 호흡곤란이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이 만성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출하하는게 경제적이며, 예방을 위해서는 밀사를 피하고 계사는 소독을 하여 2주정도 비웠다가 입식하여야 하며 종계장은 청정계군을 만들어 부화하여야 전파를 막을 수 있다.

콕시들통증(Coccidiosis)

콕시들통증의 원충에 의해 발병하고 고온다습한 계사깔짚에서 발생하며, 20~50일령 사이에 피해가 가장 크고, 감염율은 40~50%, 폐사율은 거의 100%이다.

이병의 증상은 활력이 없고, 털의 역립, 빈혈, 점액성혈변, 선홍색혈변 등을 나타낸다.

이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콕시들통제를 사료에 섞어 투여하면 효과가 있으며 오시스트를 적당히 투여하면 콕시들통증에 대한 면역이 생기고, 유전적으로 저항성 있는 품종을 선택, 사육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계두(Fowl pox), 콜레라, 전염성코라이자, 가급인플루엔자(AI), 등 수많은 호흡기계통의 질병들이 계사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로부터 효과적으로 계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철저한 백신접종

프로그램과 쾌적한 사양관리, 건강한 병아리의 선택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육가들이 백신접종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은 질병에 대해서나 그 피해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며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포천의 한 양계업자는 10여년간 양계업을 하면서 수의사들이나 약품회사의 지속적인 질병교육도 불구하고 백신접종을 전혀 하지 않았고 백신접종을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한 닭들이 병에 걸려 생산성이 저하된다고 주장하다가 작년 여름 ND에 감염되어 농장이 폐쇄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다.

사람이건 동물이건간에 병에는 사각지대가 없으며 단지 세심한 관찰과 효과적인 예방만이 건강을 유지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주시해야 한다.

(참고자료 : 농림수산부 가축 질병예찰편람)

